

# 달빛 아래, 비우면서 채워낸 애뜻한 그리움

류현자 개인전...29일까지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

## 명상으로 돌아보고 마주한 소소한 삶의 흔적 오랜 시간 천착해 온 '사모곡' 시리즈 총망라

“명상이라는 게 내 자신을 비워내고 다시 채우는 일이지 않아요. 달빛 아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씨를 쓰다보면 어느새 화면을 한기득매운 결과물을 발견하곤 해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도 이렇게 소소히 작업하며 느꼈던 일상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모곡(24-12)-만월속에 핀 연꽃'

10년째 버선을 소재로 한 '사모곡' 시리즈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오고 있는 류현자 작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에서 26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비우면서 채우는 방편들'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평면 40여점, 합죽선 20여점, 설치 60여점 등 작가의 '사모곡' 시리즈 총 30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12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전시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는 작가는 "긴 시간 동안 이어왔던 '사모곡' 시리즈를 총망라하는 전시를 마련했다"며 "엄마에 대한 생각, 작업과 일상 이야기 등을 관객과 소소하게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몇 개의 곡선과 직선이 결합된 '버

선'은 그의 주된 작업 소재다. 단순한 속 부드러운 곡과 단단함, 날렵함까지 가지고 있기에 화면 속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연민과 애잔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위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어머니와 대면하는 마음의 거울이자 고향이다. '버선'의 조형적 구성에 작가는 보름달과 연꽃, 목련, 오방색 띠 등을 '사경'(寫鏡)과 접목시켰다. 명상의 한 방편으로 한지에 불경을 써내려간 작가는 이들 작업 속에 투영시키며 '비우면서 채우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됐다.



'사모곡, 합죽선(사친 위)'과 '사모곡' 가변설치 작품

작가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공부 삼아 사경을 써내려갔는데, 어느새 작품에 응용하기에 이르렀다"며 "회화뿐만 아니라 병풍이나 합죽선 등에 세필 붓으로 방대한 양의 글을 쓰고 나면, 내 마음은 비워져 있고 작품은 채워져 있는 풍경을 마주한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작은 글씨로 채워진 화면 위 여러 번 채색해 글씨를 지우고 다양한 오브제로 화면을 채워 넣었다. 여기에 오방색 띠로 울동감을 더했다. 작품 속

자주 등장하는 연꽃과 목련은 단순히 보이는 대상, 외형을 찬미하기 위한 장식적 소재이기보다는 어머니의 자애이자 근원의 생명력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해보고, 무언가를 소망해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보는 일상 또한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다"며 "내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명상 그리고 이에 따른 작품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달빛 교류, 구상회화로 이어지다

황토회-이상회 연합전...오늘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전남 화가단체 황토회(회장 고희자)와 대구·경북 지역 미술단체 이상회(회장 최경수)가 '구상회화'로 달빛교류를 잇는다.



고희자작 '베네치아'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 황토회가 주최한 이번 영호남 교류전은 28일부터 5월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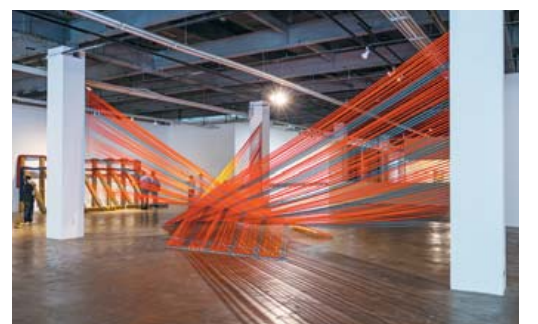
이번 교류전은 지역 내에서 구상회화 역사에 깊은 두 단체 간 미술 소통의 장이다. 두 단체가 2019년 양립미술관에서 연합전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전시로, 총 30명 작가들의 30점 작품이 전시된다.

각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예술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단체의 연합전은 내년 대구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고희자 회장은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미술에 매진하는 영호남 지역 대표 미술단체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며 "화가들만의 독특한 형태와 기법으로 다듬어 놓은 그림을 보며 예술의 향취를 머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토회는 1970년 오지호·배동신·김인규·최용갑·김수호·강동문을 주축으로 목포 미로화랑에서 창립전을 연 이래로 지역 내에서 50여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명진 기자

##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마타야호 컬렉티브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마타야호 컬렉티브(Mataaho Collective)가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마타야호 컬렉티브작 '투아키리키리'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일 개막한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 참여한 마타야호 컬렉티브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베니스 현지에서 전했다.

마오리 여성 4명으로 구성된 협업 공동체 '마타야호 컬렉티브'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화물 고정공 같은 실용적 재료를 통해 마오리족의 전통 직조 기술을 동시대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 '투아키리키리'를 선보인 바 있다.

무거운 짐을 고정시켜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끈은 마오리 사회에서 야기나 식료품, 자원 등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카웨', 즉 운송 장치를 떠

울리게 한다. 2012년에 레이던시를 통해 처음 만난 작가들은 선조들이 사용했던 기술과 이를 직접 구현하는 데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후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섬유 기반의 대규모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평생공로상은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날알터,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가 수상했다. /최명진 기자

## '전문사진' 옥맹선 씨 최우수상

제4회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2024 제4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문작가 사진 405점, 휴대폰 카메라 사진 736점 등 총 1천141점 작품이 출품됐다. 지난해 897점에 비해 244점 더 많은 출품작이 접수돼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입증됐다. 전문작가 사진 부문 최우수상(총무



옥맹선 '자태'

원장상)에는 옥맹선 씨의 '자태' 작품이 선정됐다. 휴대폰 카메라 사진 부문 최우수상(교구장스님상)은 김동희 씨의 '화엄매야경 반영'이 받았다. 전문작가 사진 부문 교육원장상은 신운철, 포교원장상은 문주환, 교구장스님상은 임귀빈 씨가 각각 받았다. 휴대폰 사진 부문 부주지스님상은 이보라, 총무국장스님상은 김가현, 교무국장스님상은 제지원, 포교국장스님상은 김순덕, 불교리더스포럼 상임

대표상은 조애순 씨가 받았다. 전영한 제4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심사위원장은 "올해 출품작 중에서는 특히 휴대폰 촬영 사진이 많아 사진대회가 화엄사의 또 하나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과거 입상작 구도를 벗어나 창의력이 깃든 사진에 많은 점수를 줬다.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들은 화엄사 2025년 달력과 홍보물에 게재된다. 수상작 시상식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화엄사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담겨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채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시보신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

